

SK, 최태원 회장에 조순 부총리...

손길승 · 황두열 · 김창근 이사 퇴진 ... 사외이사 7명으로 70% 차지

SK의 손길승 회장, 황두열 부회장, 김창근 사장과 하죽봉 변호사, 박홍수 교수 등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외 이사 전원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SK는 2월22일 서린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 비중 70% 확대, 신임이사 후보선정, 투명경영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변경 등 <2004년 정기 주주총회> 관련안건을 의결했다.

SK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재선임 추천은 없으며, 사내이사 후보 1명과 사외이사 후보 5명 등 총 6명이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SK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로는 신현철 SK가스 대표이사, 사외이사로는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오세중 전 장기신용은행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으로서 회계전문가인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자원경제학회 회장인 김태유 전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사외이사 경험이 풍부한 남대우 전 가스공사 사외이사가 추천됐다.

사외이사후보 중 서윤석 이대 경영대학장과 남대우 전 가스공사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후보로도 올라 있다.



조 순



서윤석



오세중



남대우



신현철



김태유

SK는 1월말 사외이사 비중을 2004년에는 과반수로, 2006년부터는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태원 회장이 “2006년까지 미룰 것 없이 당장 2004년부터 실시해서 세계일류수준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다른 이사들도 적극 찬성하면서 사외이사 70%안을 2년 앞당겨 시행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사 후보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SK 이사회는 총 10인 중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7인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확대되게 된다.

SK는 이사후보 선정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성실성 및 국제적 경영 감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특히 사외이사는 주주제안, 사외이사 추천자문단,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5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SK 이사회는 1월30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의 일부인 투명경영위원회 신설안도 의결했다. SK 관계자는 “투명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절차의 승인, 윤리 경영, 사회공헌, 준법감시 및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SK의 정기 주주총회는 3월12일 9시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되며 ▷재무제표 승인(배당 액면가 15%)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선정 등의 안건을 표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4>